

地誌學에 있어서 基本問題

高野史男*

1. 地理學과 地誌學

地理學이라고 하는 學問이 시작된 古代 以來, 모든 種類의 事象으로 충만되어 있는 地球表面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는 것이 地理學의 역할이었다. 이 점은 現代에 와서도 同一하다. 그러나, 近代 地理學의 創始者인 洪볼트(A. von Humboldt) 以來, 그 研究對象을 취급하는 方法이나 研究目標에 대해서는 반드시 一致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점을 조금 파헤쳐 본다면 하나의 問題點이 나타난다. 그것은 地理學을 「地球表面에 충만한 여러 事象間의 關係」의 學問이라고 하든가, 혹은 「地球表面의 性質」에 관한 學問이라고 하는가이다. 洪볼트는 植物·動物이나 그 環境條件 등 地球表面의 여러 事象을 단지 記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事象間의 因果關係·相關關係를 본다고 하는 立場을 처음으로 確立한 사람이지만, 結局 植物이나 動物을 個體로 보는 것이 아니고 集團으로서, 혹은 全體로서 取扱하고, 그들 相互, 그리고 그것들과 氣候·地形 기타의 環境條件과의 關係를 綜合적으로 考察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밀고 나아가면, 地理의 여러 事象間의 關係가 複雜하게 얽혀서 形成된 生態系(ecosystem), 즉 景觀(landschaft) 혹은 地域(area, region) 自體의 性質을 考察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地理學과 地誌學의 깊은 關係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地理學은 地球表面의 部分

인 「地域」에 대해서, 거기에 存在하는 地理의 여러 事象(地形·氣候·土壤·植物·動物·人間 그리고 人間이 만들어 낸 事物 등) 사이의 複雜한 結合關係를 分析하고, 이것들을 綜合하여 그 地域의 地域性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이 「地域性」이라는 用語를 아주 일찍부터 使用한 사람은 A. Hettner(1859~1941)이며, 이것은 傾向이나 法則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도 좋으나, 그는 다시 한번 여러 地域에 대해서 이와 같은 地域性을 알고 그 比較研究를 넓혀가는 것에 의해서 가장 一般的인 傾向이나 法則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이와 같은 地誌的 研究(regional geography)는 一般地理學(systematic geography)의 基盤으로 되는 것이지만, 또한 逆으로 個個 事象의 地理的 關係를 追求하는 地理學은 地誌學의 基盤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連鎖反應의 으로 協力하여 具體적인 研究를 進行하지 않으면 學問으로서의 進歩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나라의 地理學의 進歩는 그 나라의 훌륭한 地誌의 存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에서는 8世紀에 編纂에 着手한 「風土記」는 散漫하고, 1872년에 明治政府가 편찬에 착수한 「皇國地誌」는 未完상태로 흐지부지 없었었다. 1903년부터 1915년에 걸쳐서 刊行된 山崎直方·佐藤傳藏編纂의 「大日本地誌, 10卷」은 本格的인 地誌로서 完成된 唯一의 것이었으나, 科學적인 地誌書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여

1981年 大韓地理學會 秋季學術發表大會 特別講演 내용임.
*前筑波大學·現 立正大學 教授

기에 대해서 1967년부터 작년인 1980년에 걸쳐서 刊行된, 青野壽郎先生以下, 日本地理研究所에 의한 「日本地誌, 全 21 卷」에 의해서 日本도 처음으로 科學的인 地誌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地理學의 先進國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地誌의 研究가 盛해서 모두 훌륭한 地誌書를 갖고 있다. 韓國에서도 昨年末 「韓國地誌·總論篇」이 刊行된 것은 近年에 있어서 韓國地理學界의 눈부신 發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2. 地誌에 있어서 地域區分의 問題

地誌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點의 하나는 地域區分의 問題이다. 地域區分이야말로 地誌研究의 前提이며 同時に 結論이라고 할 수 있다. 地域區分은 무엇인가의 理論的 基準이나 方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同時に 現實의 「地域」에 관한 實際 모습에 合致한 것이지 아니면 안된다. 地理學의 役割은 그와 같은 理論과 現實의 合致를 찾아내는 것이다.

從來, 地域區分의 方法이나 基準으로서는 地形區·氣候區 등을 根底로 해서, 여기에 農業地域·工業地域·人口分布 등의 人文地理學의 事象의 分布를 綜合해서 理論的인 地域區分을 하는 것이 通例였다. 예를 들면, 독일의 地理學者로서 이베리아半島와 韓半島 地誌의 研究로써 알려져 있는 H. Lautensach(1886~1971)는 個個 地域의 地理的 諸事象의 綜合에서, 「地域」에는 規則的·連續的인 形態變異가 認定된다고 하였다. 그 形態變異라는 것은 南北의 位置, 周邊에서 中心에의 位置, 東西의 位置, 高度上의 位置와 같은, 「位置의 變異」에 의해서 생기는 地域性의 差異이기 때문에, 이들의 變異에 따라서 順次的으로 大地域에서 小地域으로의 區分이 행해지고, 그 위에 地形 등의 條件을 부가해서 한층 더 小地域 區分이 행해진다고 하였다. 이들 地域區分에 따라서 個個 地域의 地域性이 追求됨에 의해, 地誌의 一般化가 행해지며, 이렇게 해서 一般地理學의 課題인 地理的 諸事象의 法則的 類型化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해서 Lautensach 는 이베

리아 半島와 韓半島의 地域區分을 행하였다. 또 구체적으로, 韓半島에 대해서는 北에서 南을 向해 16 地域으로 나누고 있다. 이 Lautensach 와 거의 같은 時期에, 日本에는 田中啓爾(1885~1975)가 살아 있었다. 그는 日本列島의 地誌的 研究를 精力의으로 행하였으며, 또한 日本에서 大學의 地理學敎室로서는 京都大學, 東京大學에 이어 세번째의 敎室인 東京文理科大學·東京高等師範學校와 그리고 立正大學에서 많은 地理學者를 키웠으며, 日本에 있어서 地誌學派의 傳統을 세운 人物이다. 또 그는 이미 말한 日本地誌 21 卷의 刊行에는 田中先生의 弟子들, 즉 地誌學研究에 뜻을 같이한 數많은 研究者가 各地에서 地誌學研究를 계속하여, 그 수많은 成果가 蓄積되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田中의 地誌學에 대한 思考方式은 不可思意하나, Lautensach 의 思考方式과 어느 面에 있어서는 아주 類似하였다. 그는 一定 地域이 갖는 綜合的 性格을 「地域性」이라 하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地誌學이지만, 둘 以上 地域의 地域性의 理論的 說明이 地理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結局, Lautensach 와 같이, 地誌學과 地理學이 密接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거의 同意語라고 主張한 것이다.

그 위에 田中先生은 地域的 諸事象의 綜合에서 認定되는 地理的 法則, 즉 「地域性」에는 그 內容에 따라서 段階가 있으며, 一般의으로 넓은 地域에 걸쳐서 適用되는 綜合的 性格이 강한 것으로서 (I) 南北性·隔海性(臨海性)·表裏性(東西性)·高距性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特定地域의 地理的 여러 要因에 의해서 規定된 綜合的 性格이 조금 弱한 地域性으로서, (II) 三角洲性·扇狀地性·臺地性·岬端性·離島性 등을 들고, 그 위에 特定地域의 特定の 地理的 要因에 의해서 規定되는 限定的인 地域性으로서, (III) 傾斜性·乏水性·冷涼性·多雨性 등을 들고 있다. 이들 地域性의 段階는 그 一般化라든가 適用範圍의 廣狹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地域區分도 되는 것이다. 田中先生은 이에 따라서 日本列島의 大地域에서 小地域에 이르는 地域區分을 하고, 또한 小地域에서 大地域으로 쌓아 올려 가는 地誌的 研究를 하고 있다. 田中先生의 第 I 段階의 南北性·隔海性·表裏性·高距性 등의 생각은, 전혀 別個로 獨

立해서 생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Lautensach의 規則的인 「位置의 變異」에 기인되는 南北의 變異, 周邊에서 中心으로의 變異, 東西의 變異, 高度上的 變異의 생각과 놀라울 정도로 아주 類似하다. 이와 같은 것은 學說史에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意味 깊은 것이다.

以上 독일과 日本의 두 地理學者의 地誌學과 地域區分論을 事例로 해서 말하였으나, 地域區分論에 대해서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事例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들 多數는 그 基準으로서 지금 말한 두 사람과 같이 「等質地域」의 原理에 따르고 있다. 즉 「地域」을 區分하는 데에는 等質의 地域을 정리해서 하나로 하고, 異質의 地域은 따로 하는 것이다.

3. 地域區分論에 있어서 結節地域의 原理

現代社會라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그 最大의 特徵은 産業革命 以來 社會의 모든 면에서 分業化·專門化가 進行되고, 또한 大量生産·大量消費가 進行되어 왔다. 그것들에 關聯해서 商品經濟가 發展하고, 都市가 發達해서 資本主義 制度下에 都市를 中心으로 하는 生産에서 流通으로 그리고 消費라고 하는 經濟시스템이 거의 完全히 社會를 支配하고 있다. 地域에 있어서 人間도 物資도 모두가 都市를 中心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經濟시스템이 地域에 投影되어 都市를 中心으로 하는 「結節地域(機能地域)」의 地域構造가 形成되어서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되어 있다. 이 地域構造를 포착하지 않는 한, 地理學은 現代社會를 포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理論的으로 考察한 것이 W. Christaller의 中心地理論이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現代의 地理學에서는 中心地理論 등에 關聯해서, 地理區分論에 있어서도 「結節地域」의 原理가 極히 重要한 것이 되었다. 이미 結節地域의 原理를 無視해서는 地域의 問題를 거의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前述한 Lautensach, 田中도 그 地域區分의 思考方式은 주로 等質地域의 原理에 기초를 둔 것이어서, 結節地域(機能地域)의 原理에 대해서는, 그들도 물론 알고 있었으나, 部分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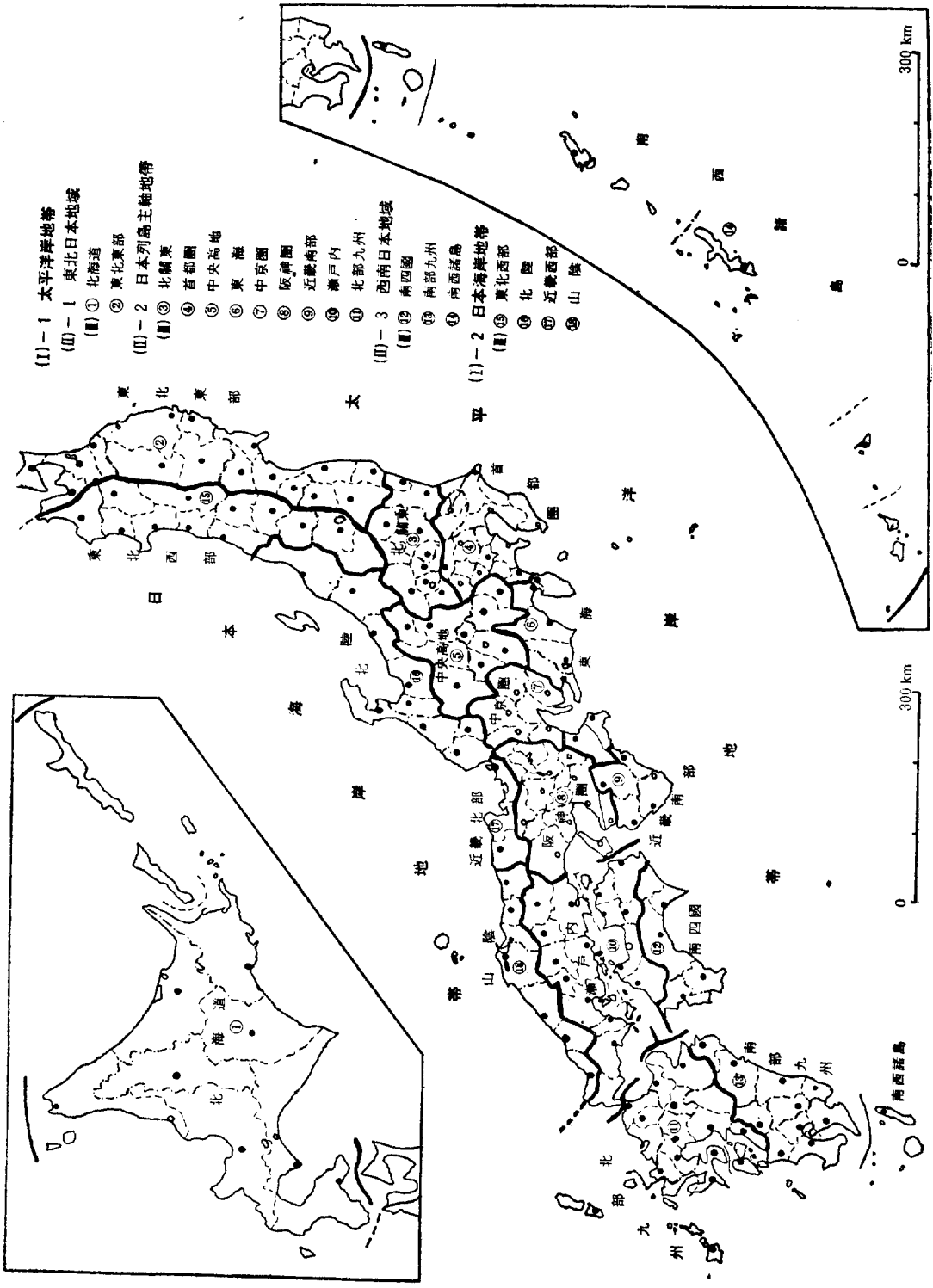
취급을 하였을 뿐이어서, 그들의 理論構成內에 충분히는 채택되어 있지 않았다. 아마도 等質地域의 概念과 結節地域의 概念이 基本的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兩者를 적당히 調和시켜서 位置를 設定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일 것이다.

結節地域原理에 따라서 地域區分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地域의 中心都市의 機能이나 結節性에 大小의 階層이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大都市를 中心으로 하는 大都市圈內에 中心都市를 中心으로 하는 中心都市圈이 포함되는 것 같은 階層構造가 地域區分에 있어서도 행해지는 것이 된다. 田中先生이나 Lautensach가 等質地域原理에 의한 地域區分을 하는 경우에, 그것의 基準으로 한 地域性, 즉 地理的 法則에 段階에 따라서 大地域—中地域—小地域의 區分을 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4. 日本列島の 地域構造와 地域區分

우리들이 日本地誌 全21卷을 편찬함에 있어서 가장 苦心을 한 것은, 全國을 어떻게 地域區分해서 地誌를 記述할까 하는 것이었다. 단지 行政區域을 그대로 利用하는 것으로는 科學的으로 意味있는 地誌가 되지 않는다. 學問的으로 포착된 現實의 地域構造에 기초를 둔 區分에 의해서 記述하는 것이 理想的이다. 그렇지만, 現實的으로 統計資料가 行政區域에 따라서 作成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완전히 無視하는 것은 人文地理關係資料의 根據를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地誌의 記述은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可能한 限, 行政區域을 존중하면서도 반드시 이것에 구애되지 않는 地域區分을 하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現實의 社會狀態를 고려하고 地域構造를 생각해서 全體를 통해 等質地域原理보다도 結節地域(機能地域) 原理를 重視하였다. 小地域의 區分을 함에 있어서도 都·府·縣을 다시 地方小都市를 結節地로 하는 數個의 結節地域으로 區分해서 그것을 地誌記述의 最小單位로 하였다.

日本列島の 全體的인 地域構造를 어떻게 생각 하는 것이 가장 適當한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考察方法이 있다. 結節地域의 原理를 基準으로 하



(I)-1 太平洋沿岸地帯

(II)-1 東北日本地域

(III) ① 北海道

② 東北東部

(II)-2 日本列島主軸地帯

(III) ③ 北關東

④ 首都圏

⑤ 中央高地

⑥ 東海

⑦ 中京圏

⑧ 阪神圏

⑨ 近畿南部

⑩ 瀬戸内

⑪ 北部九州

(II)-3 西南日本地域

(III) ⑫ 南四國

⑬ 南部九州

⑭ 南西諸島

(I)-2 日本海岸地帯

(III) ⑮ 東北西部

⑯ 北陸

⑰ 近畿西部

⑱ 山陰

그림 1 日本列島の地域構造區分(高野案)

는 것이 좋다고 하여도, 그 原理의 基盤에는 또한 自然環境條件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생각할 때, 日本列島の 地域構造로서 本人의 案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그림 1 參照).

먼저 第1로 (Ⅰ) 日本列島를 太平洋岸地帶와 東海(筆者는 日本海라함)岸 地帶로 나눈다. 이것은 주로 日本列島の 등뼈에 상당하는 山脈의 存在와, 이것을 경계로 하는 表日本·裏日本의 氣候의 差異라는 地形的·氣候의 要素에 의한 것이다. 다음에 第2로 (Ⅱ) 太平洋岸地帶中에서 兩端의 後進地域인 東北東部·北海道地方과 南四國·南九州·南西諸島地方을, 東北日本地域 그리고 西南日本地域으로 區分하였다. 나머지의 關東에서 中部·近畿·瀨戶內·北九州에 이르는 先進的인 工業化가 進行된 地域은 一括해서 日本列島 主軸地帶라고 한다. 이 主軸地帶에는 首都圈·中京圈·阪神圈의 三大都市圈이 연속하는 메갈로폴리스地帶가 포함되고, 日本 總人口의 약 60%, 國民所得의 약 65%, 工業生産力의 약 70%가 集中되어 있으며, 日本列島の 가장 重要地帶이다. 이 (Ⅰ)·(Ⅱ)의 段階까지 日本列島는 크게 四大地域으로 形成된 構造로 된다. 더우기 第3으로 (Ⅲ) 太平洋 岸地帶의 쪽은 北海道·東北東部·北關東·首都圈·中央高地·東海·中京圈·阪神圈·近畿南部·瀨戶內·北部九州·南四國·南部九州·南西諸島の 14 地域으로 된다. 東海(日本海)岸地帶는 東北西部·北陸·近畿北部山陰의 4 地域으로 合計 18 地域으로 區分된다.

또한 네 번째로 (Ⅳ) 그 以下の 小地區는 小數의 例外는 있지만, 거의 각각의 中心都市를 갖는 結節地域으로 되어 있다(그림 1 參照).

以上에서 말한 日本列島の 地域構造區分은 전혀 理論的인 立場에서만의 區分이 아니고, 日本地誌의 記述을 위해서 便宜를 고려한 地域區分이지만, 現代의 地誌學의 成果를 상당히 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地域區分을 기초로 해서 地誌를 記述하는 경우, 各個 地域마다의 記述은 그 地域의 重要性(예를 들면, 生産이나 人口의 量)에 의해서 記述의 分量이 決定되어야 하며, 또한 各地域이 따로따로 記述되는 것이 아니고, 各 地域相互의 結合關係, 그리고 全體로서의 地域시스템의 構造를 생각해서 記述이 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은 區分은 하나의 試案이라고 하여도 좋으나, 今後의 地誌學研究上的 地誌들이 될 것이다.

韓國에서도 地誌編纂事業이 進行中이라 하나, 地誌의 編纂이라는 일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나라의 地理學界의 總力을 기울여 實施하여야 하는 事業이며, 또한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調查研究의 손길이 미쳐서, 비로소 優秀한 科學的 地誌가 完成되는 것이다. 本人은 이와 같은 韓國地誌의 完成을 眞心으로 期待함과 동시에 日本에 있어서 地誌編纂事業의 經驗이 어떤 意味에서 參考로 된다면 多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들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整理 元學喜：慶熙大教授)

張保雄 著

韓國의 民家研究

寶晉齋 出版社, 1981年, 296面

人間の 오랜 세월을 두고 自然에 適應하려는 努力과 研究의 結果로 創出된 家屋은 場所에 따라서 樣式과 形態가 다르기 때문에 地域性格을 해명하는 指標로서 地理學에서는 研究對象으로 일찍부터 重視되어 왔다. 그리하여 聚落地理學에서는 家屋의 集合體를 狹義의 聚落이라고 할만큼 家屋을 聚落構成의 主軸的 要素로 研究되어온 데 반하여, 文化地理學에서는 樣式·類型의 發生과 傳播過程에 力點을 두면서 家屋을 研究對象의 全部로 삼아 왔었다.

이와 같이 人間이 居住하며 生産의 據點이 되는 家屋에 關하여 分野에 따라 觀點과 接近方法은 다르다 할 지라도 地域性格을 象徵하는 人文現象으로서 地理學界에서는 重視되어 왔으며, 民俗學·建築學 등 隣接分野와 더불어 관심을 갖고 體系的 研究를 試圖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全南大의 張保雄教授가 종래에 통용되었던 家屋을 民家로 과감하게 改稱하면서 1974年 地理學(第 10號)에 發表한 「濟州島民家の 研究」를 시작으로 原型構造가 비교적 잘 保存되고 있는 僻地와 島嶼를 現地踏査하였고, 거기에서 實態分析을 통한 韓國家屋의 平面構造를 文化地理學的 側面에서 해명해 나감으로써 類型區分과 體系化에 一貫된 努力을 기울여 왔다. 그러는 사이에 論文篇數는 늘어나고 家屋構造를 主題로한 文化地理學分野에서 韓國最初의 博士論文을 完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이번에 張保雄教授가 著述한 「韓國의 民家研究」도 그의 博士論文을 비롯하여, 그동안에 蓄積된 여러 論文을 集大成

하여 한권의 책에 收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根據로서 第 4章의 「韓國의 側入民家」를 비롯하여, 第 5章의 「濟州島의 民家」, 第 6章의 「鬱陵島의 果木式民家」, 第 7章의 「靑山島의 民家와 民俗」, 第 8章의 「全羅南道의 改良農村住宅과 傳統農村住宅과의 比較」는 地理學과 其他의 論文集에 收錄된 內容을 再收錄하거나 部分修正한 것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그동안 10餘年에 가깝도록 家屋의 文化地理學的 研究로 一貫된 그의 論文을 바탕으로 若干의 內容을 加味한 것이 이 著書이므로, 이 著書는 書名에서 풍기는 바와 같이 概說書라기보다 개인의 研究 論文集의 性格을 多分히 갖추고 있는 것이 特色이라고 하겠다.

著書의 編制는 序章, 第 1章~第 8章에 이르는 本論과 終章으로 크게 3分되고 있다. 따라서 序章에서는 民家に 關한 研究方法과 研究動向으로 다시 大別하고 있는데, 前者에서는 研究 全般에 關한 對象과 目的·方法 등을 提示하고 있으며, 後者에서는 戰前과 戰後로 兩分하여 地理學 뿐만 아니라 여기에 隣接되고 있는 建築學·民俗學·考古學 등에 걸쳐 研究動向과 그 成果를 取扱하고 있다.

本論이라고 볼 수 있는 1~8章에는 그 동안의 研究結果를 收錄하고 있는데, 第 1章은 「韓國民家の 建築儀禮와 慣行」이라는 小題目을 통하여 全南高興郡의 居金島를 事例地域으로 한 建築의 過程·儀禮·禁忌 등 無形文化의 斷面을 自然·社會經濟條件과 關連시켜 具體的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그러한 地理的 性格이 다른 地域에도 適用

시키리만큼 一般化와 檢證의 段階를 거친 것 같지 않다.

第2章에서는 「韓國의 民家型分類」라는 小題目으로 종래 여러 學者의 分類를 紹介하고, 그것이 갖는 問題點을 指適하면서 家屋이 立地하는 場所의 地形狀態·房의 配列狀態를 指標 삼아 새로운 分類를 試圖하고 있는 것은 學說의 發展의 證據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國土가 分斷된 狀況 아래서 現實調查로 얻어진 北韓의 實證資料 없이 文獻檢討를 통한 韓國의 全體 分類가 이루어진 위에, 類型成立의 要因을 地理的 環境보다 文化傳播의 源流와 관련시켜 해석한 것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第3章에서는 「韓國先史時代의 原始民家」라는 小題目을 통하여 智塔里를 비롯한 竪穴式住居의 平面形態와 構造의 特色을 紹介하므로써 家屋의 原形의 特質을 理解하는데 概說書的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original한 資料에 生命이 있는 研究論文으로 취급하기에는 格이 맞지 않는 것 같다.

第4章에서 第8章까지 收錄된 論文은 이미 地理學에 發表되었던 것을 그대로 再收錄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發表되었던 論文題目을 變形시키고 內容을 補完·修正한 것에 불과함으로 이

에 관한 언급은 省略하기로 한다.

아무튼 10餘年間의 刻苦와 努力 끝에 얻어진 論文들을 集大成하여 이것을 著書로 엮었다는 것은 新刊專門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韓國의 地理學徒들에게 活力素가 될 것으로 評者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評者의 過欲을 부려 提言을 한다면 家屋의 構造와 樣式이 歷史的 經過속에 自然·社會經濟條件과 관련시켜 變化되는 것이라고 前提할 때에, 發生源이라고 할 수 있는 先史時代의 竪穴式住居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現在地域의 多樣性을 보이는 諸類型과 어떠한 連繫性이 있는가를 우선 歷史地理學的으로 系統的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上古代→中世→近世에 이르기까지 時系列的 空白을 充塡시켜 나가는 한편, 현실적으로 島嶼·僻地에 殘存하고 있는 家屋類型과의 相互關係를 단순한 실태로서가 아니라 時空性과 관련시켜 해명하여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遺構가 殘存하고 있는 避遠地뿐만 아니라 平野地域에 관한 繼續的인 研究로 變化의 證據를 體系化시키고, 發展된 家屋類型의 區分이 完成되므로써 學界의 발전에 크게 貢獻하기를 바랄 뿐이다.

(吳洪晉：東國大教授)